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4월 22일(주일) 제1193호

당신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후원 작성



사진은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아이들.

오늘(22일)은 우리가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날이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세상을 선물할 수 있다.

오늘 예배에서 나눠주는 NGO 더

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후원금을 약정할 수도 있고, 말라리아 창궐지역에 사는 아동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는 'STOP Malaria' 캠페인, 제3세계 아동들의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마마킵(Ma-ma Kit)',

네팔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어린이 일대일 기도후원, 미얀마 아동 기숙사비 후원 사업에도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광장에서는 선교지를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선교지 체험테이블이 운영된다. 아프리카 우간다와 르완다 커피를 맛볼 수 있고, 남수단 난민촌 VR

과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 21개국 27개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조성, 취약계층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난민 케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창립했다. 지금까지 일본과 터키 지진피해 현장 등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했

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립 7년 만에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경제사회 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NGO 단체로 발돋움했다.

문의: 02-2271-224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5월 6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헌혈행사도 실시

5월 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 주변 주민들을 배려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날만큼은 지하철, 택시, 버스를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

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Acts29홀에서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헌혈을 하면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암 위험요인

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은 실천과 나눔으로 나와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헌혈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2018 온누리교회 표어 손글씨 공모전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재훈 담임목사의 신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출간을 기념하는 손글씨 공모전이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참여방법은 두란노 서점에서 종이를 받아서 2018년 온누리교회 표어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손글씨로 적어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에 제출

하면 된다. 수상자는 6월 22일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1등(두란노 기프트 카드 10만원, <생명의 삶> 또는 <빛과 소금> 1년 정기구독권) 1명, 2등(두란노 기프트 카드 5만원) 2명, 3등(두란노 기프트 카드 3만원) 5명, 아름다운 손글씨상(이재훈 목사 저서 증정) 20명을 시상한다.

함께 갑시다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축하하고, 성지순례와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땅 이스라엘이 올해 독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된 이후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다. 한·이성경연구소(KIBI)가 6월 2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와 역사, 변화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송만석 장로(KIBI)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성지순례의 의미와 필요성,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송만석 장로
(KIBI)

이스라엘이 올해 독립 70주년을 맞이했다. AD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온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자신들의 나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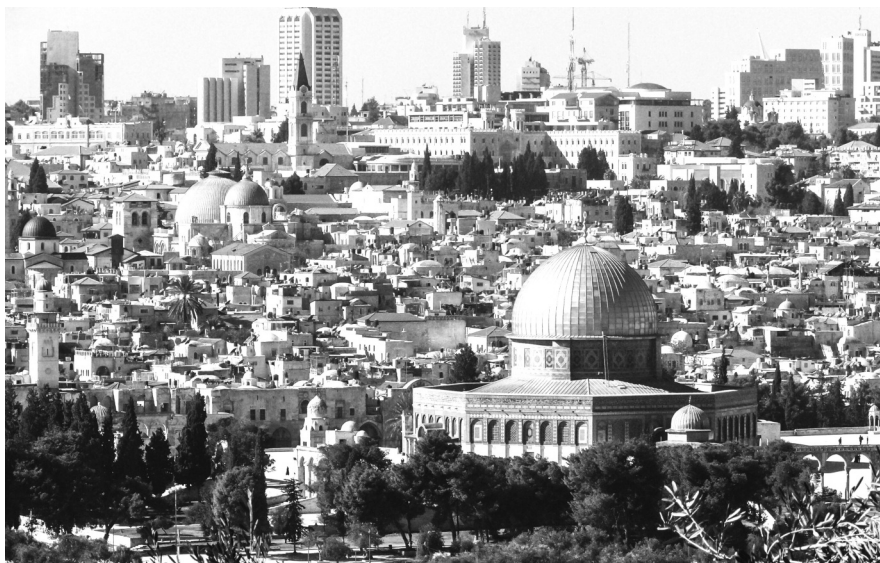
세웠다.

“저기 구름처럼 동실거리며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동지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사 60:8).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건국은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풍요의 약속도 지키셨다. 키브츠, 모샤브 등 집안농촌마을을 세워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만들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 산업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첨단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테러 속에서 군사강국으로도 발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했다. 1897년 제1차 시온주의자(시온의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운동) 회의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함으로써 유대 국가 건국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1917년 11월 영국 외무부장관 벨푸어 선언에서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선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서구 열강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947년 11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할 독립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고,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영국군이 팔레스타인을 철수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독립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전경.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사 66:8)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독립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아랍인들의 핍박이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로 구성되어 있는 아랍 동맹군과 제1차 중동전을 치렀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아랍 동맹군을 격파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분쟁으로 촉발된 제2차 중동전에서는 이스라엘, 영국 및 프랑스 연합군이 이집트 군을 물리치며 수에즈 운하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다. 이집트는 두 번의 중동전에서 패배한 이후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와 동맹을 맺고 또 다시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1967년 6월 이집트 공군기지를 선제 공격했다. 이 6일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요르단으로부터 성전산이 포함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탈환했다. 놀라운 사실은 6일전쟁 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복음전도가 시작되었다(마 23:37~39).

2천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다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한 포기 없는 황폐한 땅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막에도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농지면적도 3만 헥타르에서 19만 헥타르로 증가했

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매우 작지만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형과 기후가 다양하다. 그 덕분에 다양한 작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밭에는 밀, 옥수수, 수수, 지중해 연안에서는 감귤류, 아보카도, 키위, 구아바, 망고, 포도 등의 과실, 전 국토에서는 토마토, 오이, 고추, 호박 등이 생산된다. 계곡 지역에서는 멜론, 아열대 지역에서는 바나나, 대추야자, 북부 구릉 지역에서 사과, 배, 체리 등이 재배되고 있다. 우유 생산량은 평균 1만 리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많은 양의 화초도 수출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수익이 5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백합, 장미, 튜립, 다양한 선인장 등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경말씀 회복이 구체화 되고 있다. 유대인 남성 교육기관인 ‘예쉬바’가 전국적으로 174개가 세워졌으며, 다양한 언어로 성경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혼 남성을 위한 ‘콜렐’과 정통 유대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미드라샤’도 이스라엘에 60여 개가 있다. 회당은 예루살렘에 25개, 전국적으로 총 60여 개가 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당시 유대계 학자들이 모든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문어체적 히브리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성서 히브리어의 어휘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맞는 어휘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에젤 벤 예후다’가 처음으로 뉴스 토크에 히브리어를 게재함으로써 히브리어 개념이 회복되기 시

작했다. 어휘를 만들어내는 ‘벤 예후다 사전’도 편찬됐다.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학교를 세우고,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 사용을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국가 언어가 되었다.

최근 유대인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유대인들이 전도지와 신약성경을 받기도 하고,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눈물도 흘린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가까워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 2천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돌아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의 역군으로 세워질 것이다.

노방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찢어버리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도지를 받아 읽기까지 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 독립 당시 몇 가정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3만 5천명을 넘어섰다. 교회도 300개가 넘게 세워졌다.

성경 읽는 감동이 배가 된다

성경적으로 ‘70년’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러가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땅,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천사가 말했던 장소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면 성경 읽는 감동이 배가 된다. 가버나움, 갈릴리, 돌짜발을 실제로 보면 그 감동이 더 커진다.

다가오는 6월 7일, 이스라엘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축하행사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이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함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이스라엘을 돌면서 성지순례도 하고, 전도도 하면 정말 좋겠다. 각 그룹별로 성지순례 코스를 정하고 사역도 계획할 수 있다.

KIBI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들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역을 한다. 가난한 정통유대인 가정, 장애인, 미혼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메시아니 유대인 등 상처받은 유대인 3천 명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축하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좋다.

문의: 02-792-7075~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사탄을 전설이나 미신이 만들어 낸 존재라고 여기거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사탄의 은밀한 뒤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 점점 둔감해집니다. 보이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점점 둔감해집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그때는 사탄의 존재를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탄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 뜻하는 바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사탄과 연관시키는 것은 사탄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탄만 바라보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

사탄이 강한 이유는 우리가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만큼 힘을 가집니다. 작은 동전으로 어떻게 태양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직경이 139만km나 되는 태양을 작은 동전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동전을 눈 가까이 대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눈 가까이 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써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을 멸하실 수 있지만 사탄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

순종하는 백성들을 악한 적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 다. 그때 그 악령을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징계하실 때 악한 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영혼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택하신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괭이와 같은 도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경건한 성도가 당한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 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욥에게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욥의 믿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금도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을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아마 사탄은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거짓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탄의 시도를 가리켜 ‘우주적 도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우주적 도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어 자신과 같아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모함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요일 3:8).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본성 자체가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 무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이용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거짓된 영들, 사탄에 종노릇하던 죄의 습관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사탄의 영향력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즉 사탄을 합입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모함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입니까? 선한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자들을 부당한 비판과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군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몇 가지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25~26절).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최대한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이 지독하게 뭉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도 체계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명령하고 수행하는 체계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도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분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C. S. 루이스가 사탄의 입장에서 부하 마귀를 코치하는 시각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일종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가 조카 윈우드를 코치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책 서문을 보면 작가가 고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들이 악마를 미화시키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동안 악마의 마음을 상상해야 하니까 마음이 비틀어지고, 경련이 오고, 나중에는 질식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끔 참조를 해야지 은혜 받았다고 읽으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28~29절).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둑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으로 물건을 탈취해서 그 집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 선한 이의 물건을 찾아주면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악한 자가 사람들을 힘으로 가둬놓고, 납치하고, 착취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있다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들을 구원하면 그를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3면에 계속>**

사탄과 하나님 나라

마 12:22~32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특별기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신앙의 본질 위협하는



이은일 장로
(한국창조과학회,
고려대 의대 교수)

유신진화론처럼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유신진화론과는 달리 사람이 초월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다. 이런 이론들을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간격이론’, ‘다중격변론’ 등 다양

한 이론들이 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아담의 초월적 창조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의 기원으로서 아담의 범죄와 죽음의 시작을 부인하고, 지층과 화석에 나타난 수많은 생명체들의 죽음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점진적 창조론은 인간의 초월적 창조는 인정하지만 지층과 화석이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점진적 창조론은 유신진화론처럼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지층과 화석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타협이론을 분별하는 방법

점진적 창조론의 이러한 주장은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생명체의 죽음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 동물들의 죽음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계는 동물 입장에서 이미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롬 5:12), 사망은 죄의 삯(롬 6:23)이며,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고전 15:26)로 표현되어 있다.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점진적 창조론은 동물들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처음부터 죽어 있어 있는 동물들의 세계와 죽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계는 인간의 범죄 전까지는 죽음이 없는 세계였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흠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이 시작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고 표현하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롬 8:21)”되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인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칸 고원. 노아 대홍수 격변의 증거이다.

마지막 심판 이후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죽음 없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사람의 창조가 생명체 죽음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건도 사람으로만 국한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초월적으

로 유신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 등의 이론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창조와 죽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세계를 초월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지, 인간 창조 이전에 생명체의 죽음이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점진적 창조론은 지층과 화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사람의 창조 이전에 이미 죽음이 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생명체들의 화석을 인간 창조 이전 동물들의 죽음으로 해석한다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이론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이론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더 믿어지게 된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범죄로 함께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점진적 창조론자는 에덴동산에서도 식물의 죽음이 있었고(아담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걸어 다니면서 벌레 등이 밟혀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죽음은 죄를 흘림과 동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먹을 것으로 창조하셨다.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이 죽는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벌레도 아담의 발에 쉽게 밟힐 만큼 어리석지 않고, 아담도 벌레를 일부러 밟지 않았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인 이반 드보르는 “나는 (지층과 화석에서) 무관심과 변덕만을 보게 된다. 어떤 종류의 신이 99.9%의 멸종률로 일을 하는가?”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지층과 화석들이 아담 창조 이전에 존재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을 멸종시킨 무능하거나 변덕스러운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층과 화석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층과 화석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라

점진적 창조론은 지층과 화석에 대한 진화

론적 해석을 수용하기 때문에 지층과 화석의 순서들을 창세기 1장의 기록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생물들의 창조 순서와 지층에 나타난 화석의 진화 순서는 매우 다르다. 진화론에 의하면 바다생물이 식물보다 먼저 출현하지만, 성경에는 식물이 바다생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진화론에 의하면 파충류가 새들보다 먼저 출현하지만, 성경에는 새가 파충류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오래 전에 삼엽충과 공룡들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멸종시켜서 사람은 이러한 동물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될 수 있는가? 엄청난 지층과 생명체의 화석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신 심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시대에도 화산폭발 등에 의해 작은 규모의 지층이 쌓이기도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해 퇴적층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지질학자들은 오랜 세월 천천히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규모가 큰 퇴적암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지층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진화론적 상상력에 불과하다. 만약 서서히 오랜 시간 지층이 형성되었다면 어떻게 퇴적층들은 역암, 사암, 석회암, 이암 등으로 분류되어 층층이 쌓여있을 수 있나? 어떤 시기는 수십~수백만 년 동안 모래만 쌓이고, 어떤 시대는 석회암 쌓인다. 어떤 시대는 진흙만 쌓였다는 것인가?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거대 규모의 지층 구조는 오랜 시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규모의 격변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지구 지표면의 75%는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두께로, 수백~수천 킬로미터 길이로 대륙을 횡단하는 광대한 퇴적지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랜드 캐니언의 타핏 사암층은 북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에 걸쳐서 쌓여져 있는데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도 발견된다. 도대체 어떤 물의 흐름이 이렇게 광대한 지역에 엄청난 넓이와 두께로 퇴적층을 쌓아놓을 수 있었던 말인가? 나머지 지표면 25%는 거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인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인도의 데칸 고원의 경우 인도 전역을 거의 덮고 있는데 전체가 모두 마그마 분출로 인해 형성된 현무암층이다. 도대체 어떤 규모의 화산 폭발로 남한 면적의 15배 규모의 현무암층을 만들 수 있었을까?

퇴적지층을 관찰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쌓여졌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대부분의 지층 사이의 경계면은 칼로 자른 듯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침식된 흔적, 식물활동 등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있어야 할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부드럽고 유연한

타협이론들을 분별하라!

상태에서 습곡 된(휘어진) 많은 지층암석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암석들은 굳어진 후에는 깨어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지층들이 급격히 퇴적되었고, 암석으로 단단히 굳어지기 전에 압력을 받아 습곡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견된 퇴적 형성 이론과 실험에 따르면 퇴적입자들이 거대한 물에 의해 흘러가면서 크기, 무게, 비중 등에 따라 서로 분류되며 여러 지층 구조들이 동시에 퇴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속적 과학자들 중에도 운석충돌과 같은 거대한 격변이 이러한 퇴적암층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진화론 과학자는 공룡의 멸망과 두터운 이리돌 퇴적층 형성이 운석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쓰나미 이론’이라 부르는 이 이론들은 진화론적인 지층 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류 과학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점진적 창조론 중에도 여러 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 지층과 화석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중격변론’이 있다. 지층과 화석이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주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운석충돌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다중격변론은 아담 창조 이전 동물들의 죽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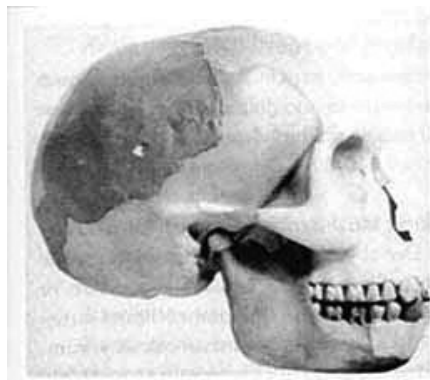
다중격변론의 근거는 첫째,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개의 운석공(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있고, 둘째 다양한 지층 구조와 대협곡들이 한 번의 홍수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에 운석이 떨어진 흔적은 있지만 시간 차이를 둔 여러 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서는 시간 간격이 발견되지 않는 거대한 퇴적암층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 다중격변론은 노아 시대 대홍수 격변을 단순한 홍수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다. 노아 시대 대홍수 격변은 한 번의 쓰나미가 해변을 덮치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와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많은 연구 끝에 2003년 ‘대홍수 격변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지구 과학 이론과도 잘 접목되면서 물리화학적 모델로써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 모델을 통해 큰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시작된 성경의 대홍수 사건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홍수 격변 모델에 의하면 대홍수는 전 지구를 두 번 정도 감싸고 있는 거대한 해령(바다산맥)이 형성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하나의 땅이었던 육지가 갈라지고 이동하는 거대한 대륙 이동이 시작되었다. 세속 과학자들은 대륙 이동이 서서히 오랜 시간 이뤄진 것이라고 믿지만, 맨틀의 대류만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이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홍수 격변 모델은 가능하다. 해령을 형성할 수 있는 거대한 큰 깊음의 샘이 폭발하고, 이후 대륙판

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거대한 산맥과 습곡이 형성되며, 동시에 강력한 지진과 거대한 규모의 화산활동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수많은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퇴적암이 형성되고 수많은 화석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빠른 대륙이동으로 인해 발생된 엄청난 열은 바다의 온도를 높여 대홍수 이후 100여 년 후에 빙하기가 온 것을 잘 설명할 수도 있다.

대홍수 격변 모델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 지구적 격변을 과학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전 지구적 대홍수 격변 외에는 현재의 지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마 24:37~39), 성경 여러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벧전 3:20, 벧후 2:5, 사 54:9, 히 11:7). 더 중요한 것은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전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



◀ 1912년 진화론의 중간 단계 화석으로 발견 되었지만 위조로 드러난 필트다운인 화석.

있다는 것이다. 지층과 화석을 바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대홍수 심판을 묵상하게 되고, 미래의 마지막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진화론의 거짓 주장들을 분별하라

지층과 화석에 대한 진화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유신진화론과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의 증거를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협이론들이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를 갖춘 믿음직한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59년 다윈에 의해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1912년 진화론의 예언대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었다. 영국 필트다운 지역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사람의 머리뼈, 오랑우탄의 아래턱 뼈, 침팬지의 송곳니 등을 결합시켜 만든 가짜 화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지질학회에서 발표되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진화의 완벽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1953년 타임지는 이 화석이 위조된 것이라고 크게 보도하였고, 1962년에는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짜 화석이라고 발표하였다. 필트다운인 화석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발견된 적 없는 인류 진화의 완벽한 증거였다. 필트다운 이전 발견된 자바원인의 경우 원숭이의 머리뼈 일부와 15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의 대퇴골이 전부였다. 이것이 한 개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진화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후 발견된 필트다운인 화석이 진화의 결정적 증거로 환영받았던 것이다. 필트다운인이 발견된 1912년부터 폐기처분된 1953년 또는 1962년까지 인류 진화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가진 이론이 되었다. 진화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지층과 화석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나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사건 등은 모두 신화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창조과학 운동은

정교한 설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구출해준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다. 도킨스는 1987년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통해 설계 논쟁을 진화론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였다. 도킨스 이전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 세상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과감히 인정하면서 ‘진화의 위대한 과정’이 이러한 설계를 탄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서를 만든 자는 눈먼 창조주, 즉 우연한 진화과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킨스가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내기 1년 전 무신론 과학자 마이클 덴튼은 《위기의 진화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 버클리 법대의 필립 존슨 교수는 도킨스가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못하고, 교묘한 논리로만 진화론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존슨은 1991년 《심판대 위의 다윈》을 출간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옹호하는 이유는 과학적 증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기원을 설명하려는 자신들의 철학 때문임을 폭로하였다. 이 책 출간 이후 진화론을 비판하는 지적 설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질서는 우연이 아닌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 논문에 활발히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진화론은 거짓 증거나 교묘한 주장에 의지하고 있을 뿐 생명체가 진화되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전체 지층구조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진화론 교과서에만 있을 뿐이다. 거대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고생대 일부 지층구조만이 존재할 뿐이다. 진화론적 상상력을 제거하면 이런 거대한 지층과 수많은 생명체의 화석들은 오랜 시간 서서히 생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홍수 격변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홍수 격변 모델만이 흘러져 있던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성경과 과학의 조화는 과학이론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과 과학적 증거가 일치할 때 되는 것이다.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 현재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지형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대홍수 격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이론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더 믿어지게 된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론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이즈 패밀리’ ... 자녀양육에 초점 둔 부모교육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와이즈 패밀리(Wise Family)’다. 와이즈 패밀리는 자녀양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과정이다. 함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부모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와이즈 패밀리 5기가 진행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도록 돕는 와이즈 패밀리 참가자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이즈 패밀리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와이즈 패밀리 1기부터 5기까지 참가하고 있는 조승철, 지혜경 부부도 그랬다. 사실 와이즈 패밀리 프로그램에 처음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싸우지 않는 가족이 평안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 가정의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들 현우(7세)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부부는 종잡을 수 없는 아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통제하려 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지쳐갔다. 때마침 와이즈 패밀리에 참가했다가 생각을 전환했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현우를 어떻게 바라보실 지를 먼저 생각했더니 현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최태순, 권영순 부부(인천 성광교회)는 지인의 소개로 와이즈 패밀리에 참가했다. 아내 권영순 성도는 와이즈 패밀리에 참가하면서부터 남편의 자녀양육법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환하게 웃었다. 둘째 아들 현준(6세)이도 거리낌 없이 아빠 최태순 성도에게 달려와 안겼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사랑 넘치는 부자관계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최태순 성도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화부터 냈다.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와이즈 패밀리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부모는 청지기”라는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자녀에게 화를 내는 법이 없다. 대화하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와이즈 패밀리를 시작한 지 5주도 안돼서 생긴 변

화다.

김재형, 박미숙 부부는 부모의 정체성 발견을 와이즈 패밀리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고백했다. 김재형 성도는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준다. 과거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다.

“자녀들과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와이즈 패밀리에서 내준 숙제를 하면서 서툴렀던 감정표현이 성숙해지고, 대화가 깊고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모두 와이즈 패밀리 덕분이예요”

와이즈 패밀리 의미와 특징

와이즈 패밀리(Wise Family)는 자녀양육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과정이다. 이름 그대로 ‘말씀이 삶이 되는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의미다. 와이즈 패밀리의 모태는 와이즈 마더링(Wise Mothering)이다. 와이즈 마더링은 2008년 9월부터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137명이 수료했다(2017년 기준). 2014년 9월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와이즈 파더링(Wise Fathering)’을 시범 진행했다. 와이즈 패밀리는 2016년 3월부터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2명이 수료했고, 현재 5기에는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와이즈 패밀리에서는 ‘지혜’, ‘자유’, ‘회복’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지혜는 잠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여성(남성)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자녀와 어머니(아버지) 관계 등을 살펴본다. 자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다. 회복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얻도록 돕고 있다.

와이즈 패밀리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QQ(Quaker Question, 퀘이커 퀘스천)나눔이 특징이다. QQ는 영국 퀘이커 교도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눴던 질문이다. QQ에는 4가지 질문이 있다. 어렸을 때(12세 미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인생에서 가장 뜻했던 시절, 가장 추웠던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바로 그것이다. QQ 나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중보하면서 하나 되고 있다. 조장들의 북셰어(Book share)와 독후감, 숙제, 풍성한 나눔, 가족들과의 하브루타를 통해 말씀을 적용하고, 회복을 얻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의: 032-322-9686

목회칼럼



김정순 목사
(부천 차세대)

온누리교회 마더 와이즈는 2008년 9월 와이즈 마더링(Wise Mothering)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와이즈 마더링은 ‘지혜로운 엄마 되기’라는 뜻이다. 엄마는 늘 공사 중이기에 ‘-ing’라는 이름을 붙였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회개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와이즈 마더링 지체들은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마더 와이즈는 1981년 드니즈 글렌이 〈지혜〉, 〈자유〉, 〈회복〉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시작했다. 한국에는 2000년경 조은영 사모(원천교회)가 처음으로 소개했다. 많은 여성들이 마더

와이즈를 통해 자신의 영성은 물론 건강한 자녀교육에 대해 함께 중보하며 가정을 세워 나가고 있다. 또한 남편인 데이빗 글렌은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책을 썼다. 이 네 권의 책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절절히 담았다.

나는 온누리교회에 마더 와이즈를 처음 소개했다. 지금은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북경, 대련,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해외비전교회까지 뻗어나갔다. 이외에도 서빙고에서 훈련받은 조장들이 대구, M센터, 한터, 캐나다 밴쿠버, 아프리카 모리타니, 뉴질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4년 9월 ‘와이즈 파더링(Wise Fathering)’을 실험그룹으로 진행했던 때를 잊을 수 없다. ‘회복’을 주제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조장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실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에서 마더 와이즈를 수강한 성도와 섬겼던 조장까지 합하면 무려 5,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2015년 9월부터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담당하게 됐다.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마더 와이즈를 함께 들으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2016년 3월부터 부부를 함께 초대했다. 강의 때마다 자녀교육 영상과 ‘하브루타(가족들이 서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숙제를 내 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는 마더 와이즈라는 이름 대신 ‘와이즈 패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끝인 해체주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해체주의로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루키즘(외모지상주의)과 미디어, SNS의 홍수 속에서 다음세대 아이들이 진리를 모른 채 떠내려가고 있다. 바로 이때 엄마 아빠가 함께 하브루타(질문)와 코칭식(공간, 경험, 칭찬)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 요즘 부모들은 학력이 높고, 자녀를 적게 낳아 더 잘 키워 보려고 한다. 신앙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하거나 공부에 더욱 치중되어 있는 경우를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극히 일부 부모를 제외하고는 부모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부재하다. 교회에서도 교사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소그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4차 산업혁명, 통일, 가족해체라는 묵직한 주제가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시급한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부모교육, 즉 와이즈 패밀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4

아름다운 삶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다. 어머니를 통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한 지혜로운 한나, 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왕께 나아간 에스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 자신의 값진 것을 드려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 사도들을 도와 복음을 전한 이방인 보바,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였다.

어머니의 동지는 어떤 명문 기관의 교육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안전성과 보전에 더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어머니 같은 좋은 교사는 없다. 신이 모든 사람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의 눈물은 희생과 사랑이다.

아름다운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족이

함께한 자리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사명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다. 가정은 집이 아니라 행복을 도모하는 곳이다. 가족 사랑, 가족 건강, 가족 행복.

언덕 위의 집

들소들이 뛰고 사슴 노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오
걱정소리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오



가정을 위한 기도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힘이 되어 즐거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를 위한 글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작고 소박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지 아니하며 서로 양보하고 허물이 보일 때 덮어 주게 하소서.

어려울 때는 곁을 지켜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용기 잃었을 때는 두 손 잡게 하소서.

제일 행복한 것,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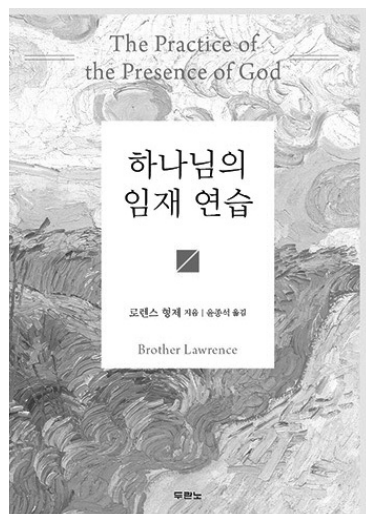
제일 좋은 시간: 지금
제일 좋은 선물: 미소
제일 큰 손해: 친구를 잃는 것
제일 필요 없는 재산: 자존심
제일 불필요한 것: 불평
제일 행복한 것: 사랑
제일 큰 실수: 할 수 없다는 생각
제일 나쁜 마음의 병: 질투
제일 좋은 언어: 침묵
제일 쉽게 병을 얻는 것: 걱정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지런한 것이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

동양의 선조들도 제일 큰 죄가 무엇이나 하면 죽한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두란노 신간

모든 크리스천이 구해야 할 은혜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저 | 두란노 | 8,000원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건조한 일상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한 권 나왔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카르멜 수도회의 평수사로 생을 보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얻은 지혜를 기술한 책이다. 로렌스 형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이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인생이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구해야 할 은혜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른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영혈교사 전도왕〉

최병호 저 | 두란노 | 13,000원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차세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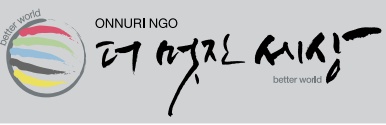
차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혈교사 전도왕〉의 저자는 18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전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차세대들의 이성교제, 관계, 훈계하는 방법, 주일성수 지키기 등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차세대 전도는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지혜롭게 소통할 때 가능하다. 차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언어는 바른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다. 오직 기도와 사랑만이 차세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차세대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다.

〈영혈교사 전도왕〉은 일상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차세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기획 / NGO 더멋진세상이 간다

둘도 없는 내 친구 ‘더멋진세상(Better World)’

나라와 종교, 인종과 지역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이웃들이 자연재해, 빈곤, 질병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지구촌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집, 학교, 병원을 지어주고, 식수문제 해결과 말라리아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연농법을 이용한 농업사업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막에서 재배한 딸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고통 받고 신음하던 지구촌 이웃들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살아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된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선물한 그 아름답고 기적 같은 일들을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Making a Better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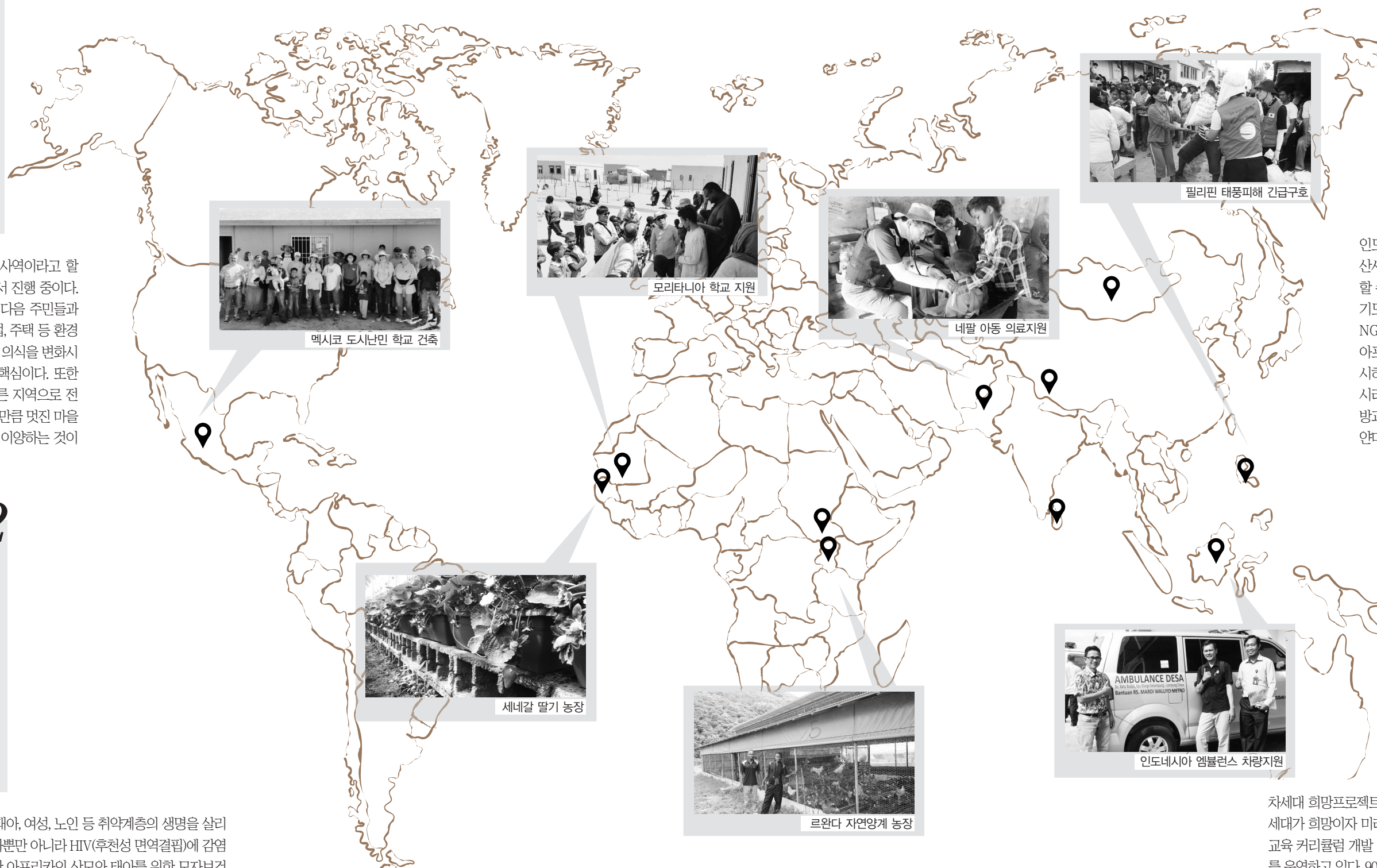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NGO 더멋진세상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11개국 13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가난하고, 열악한 마을을 선정한 다음 주민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마을로 개발(조성)하는 것이다. 식수, 농업, 주택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개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한 총체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이 개발한 더멋진마을을 모델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예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진 마을을 만들어주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도록 온전히 이양하는 것이 이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2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사업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 산모, 태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 현재 4개국 4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HIV(후천성 면역결핍)에 감염된 아동들의 치료를 돕고, 출산 및 산후조리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산모와 태아를 위한 모자보건과 위생을 위한 사업, 어린이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모기장 배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과 르완다 응호랑과 마을에는 NGO 더멋진세상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조산시설과 보건소를 세웠다. 네팔에서는 HIV 감염 아동들도 케어하고 있다. 매월 HIV 감염 아동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검진을 해주고 있다. 90여 명의 HIV 감염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3



인도적 지원사업
(긴급구호, 난민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은 ‘긴급구호’ 혹은 ‘난민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난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더멋진마을 사업의 접착점이 되기도 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 캠프도 섬기고 있다. 남수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난민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간다 북부 부드리 난민촌에 초등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시리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레바논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덕분에 부모들이 생활비를 버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미얀마, 터키, 요르단 등지에서도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4



차세대 희망프로젝트

차세대 희망프로젝트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차세대가 희망이자 미래를 기억하고 아동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 학습용 기자재, 청소년센터,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EC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90여 명의 아이들이 ECD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필리핀 아덴타바 마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를 세웠다. 기숙사가 없어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며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들이 편히 쉬 수 있는 거처가 생겼다. 청소년들은 기숙사에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위키스마카시에도 청소년 비전센터를 설립했다.

*사진으로 보는
더멋진세상
연혁

2010

12.22 창립총회



2011

03 일본 쓰나미피해 긴급구호, 지원
12 터키 지진피해 지역(VAN) 긴급구호



2012

04 세네갈 본나바 ‘어린이 생명 살리기’ (CRP) 프로그램 사업



2013

10 르완다 응호랑과 마을 이동
검진클리닉 사업



2014

06 기니비사우 블롬 마을
우물 1호 완공



2015

02 필리핀 비농안안 섬 조기복구사업
종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06 네팔 희망의 집짓기 캠페인
12 아이티 태풍 조기복구 지원



2017

04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획득



2018

0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정한호 목사
(여호수이공동체)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보이는 직분의 변화가 아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또 하나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딤후 4:14~16).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목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명사가 오염될 때 형용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명사 중의 하나가 ‘목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신임목회사관학교에서 “설교의 해석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육한 목사님은 목사 안수식에서 제게 신발을 사주시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안수 받을 때 신발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을 누비라고 말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사역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목회의 길을 걸을 힘이 납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목사가 되어 성도님들을 돌보며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 하겠습니다.



이종현 목사
(SNS공동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자리를 감당할만한 그릇이 못 되며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늘 겸소한 저의 시야를 뛰어넘으시고 편협한 저의 생각보다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 한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매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도록 겸손히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유승현 목사
(양재 소년부)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목사”

12년 전 다음세대를 향한 소명을 받고 오로지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제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신 소명을 붙잡고 더욱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개강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곡교육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양육 받을 수 있는 스쿨이 개강한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가 그것이다.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차세대, 올바른 양육관을 지닌 부모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체성과 부모이해’, ‘감정다루기’, ‘멘토링’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접수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2774-3554

양재 상담실 음악치료
참가자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악기와 음악을 이용해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를 다루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담 프로그램 ‘오르프 음악치료를 통한 마음의 쉼 갖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양재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문의: 02-570-7536

〈순전한 기독교〉
북콘서트

온누리 세계관학교가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와 함께 나눈다. 문의: 02-3215-3637

강동 젊은부부학교 개강

강동 온누리교회 젊은부부학교 5기가 개강한다.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강동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고 싶은 성도라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2022-8181

창조과학선교팀 탐방 및 활동 다양

서빙고 창조과학탐사, 양재 과학소풍

서빙고와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에서 탐사 및 과학소풍을 간다. 서빙고 창조과학선교팀은 4월 28일 노아홍수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창조과학탐사’를 간다. 삼척 대금굴, 순교자교회, 촛대바위, 태백 통리협곡, 구문소 등지를 탐방한다. 초등 3학년 이상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회비 12만원(교통, 숙식 포함).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은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뒷동산으로 과학소풍을 간다. 이날 과학소풍에서는 ‘잎의 신비’를 주제로 식물 창조 이야기, 뒷동산 식물 탐험강의와 실험활동 등이 이어진다.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이다. 문의: 서빙고 010-7292-2349 양재 010-8906-4940

오늘까지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수거함 이용이나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굿월스토어가 함께하는 생활용품 기증 캠페인이 오늘(22일)까지 실시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된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그 외 캠퍼스는 생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굿월스토어에 한꺼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할 생활용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부 가능한 생활용품은 의류, 잡화, 도서, 가전제품 등 쓸 수 있는 물건이다. 혼자 들 수 없는 대형 가전제품이나 이미 사용한 속옷, 양말 등은 기증할 수 없다.

문의: 02-6910-9191

CMN 의료사역팀 국내 봉사자 모집

CMN ‘라파팀’에서 매월 넷째 주 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할 치과 의사, 치위생사, 의사를 모집한다. ‘Bee팀’에서는 의사, 약사, 치위생사를 모집한다. 매월 둘째 주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한다. ‘드림팀’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산 CIS교회에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칠 한국어 교육 봉사자를 모집한다. 문의: 02-3215-3786

세례자명단

열린새신자예배
김진용 861212
이선정 810718

유아
강유은 160519
강태훈 삼진형
김다예 170928
김정우 안지연
김예선 170603
김흥수 윤은지
김유준 161206

김영근 하라임
김재민 170113
김희봉 최은희
이은유 161202
이동민 이경하
조 은 160622
조윤재 조진선
조이안 160728

조성환 이문영
함예나 171113
함정호 김지은
함 온 151010
함영훈 엄정원



샅포로 기 · 도 · 제 · 목

■4월 23일(월)
■4월 24일(화)
■4월 25일(수)
■4월 26일(목)
■4월 27일(금)
■4월 28일(토)
■4월 29일(주일)

우상을 향했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출연자들에게 기쁨 부으심이 있기를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길
한일리더십포럼에 많은 일본인 리더십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CGNTV 장비 준비 과정에서 안전 지켜주시고 잘 진행되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날씨와 환경을 지켜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다락방 1사역 간증



/ 문지호 다락방장(한강공동체)

3년 전 교회에서 1다락방 1사역을 권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과 꿈사랑부를 만나게 하셨다. 꿈사랑부는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에 장애아동을 위한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관심을 기울여본 적이 없었다. 장애아동들의 돌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신경한 나의 행동이 장애아동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멀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다락방이 사역을 찾고 있을 때 한 분의 소개로 꿈사랑부와 만나게 됐다.

우리 다락방의 첫 번째 사역은 꿈사랑부 여름캠프 자원봉사였다. 장애아동들이 부모 없이 밖에서 1박을 하는 것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봉사자 교육을 위해 모였던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장애아동들과 눈 맞추는 것이 그냥 어려웠다. 매주 교사로 섬기는 분들 사이에서 하루 이를 봉사한다고 나선 우리들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첫해는 여름캠프에만 참석했고, 다음해에는 순식구들이 돌아가며 꿈사랑부 예배에 참석했다. 장애아동들과 각 손을 일대일로 연결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도 했다.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아이들

장애인주일을 맞아 돌아보니 꿈사랑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꿈사랑부는 연약함이 자랑인 곳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구하는 겸손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약한 아이들의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장애아동 가정의 기도제목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특별한 아이들이다. 장애아동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이다. 이 귀한 예배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장애아동 가정에게도 꿈사랑부를 소개하고 자랑했다.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 자랑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꿈사랑부 예배에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일 오전 9시 선교관 3층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뒷자리는 성도님들을 위한 의자가 놓여 있다. 내가 겪었던 어색함을 느끼겠지만 내가 경험한 능력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채중원 집사(대전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은혜

아내가 십여 년 전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고 아내는 매우 답답하고 힘들어했다. 연구원 일도 많고 지고 박사학위 과정도 시작해서 내 생활은 점점 더 분주해졌다.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고 아내는 아내대로 육아와 살림으로 바쁜 생활을 이어갔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항상 일방적이었다. 주로 아내만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내를 공감하지 못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방안만 제시했다.

세월이 흘러서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내가 원하는 박사학위도 받았다. 막상 학위를 받아보니 기쁨은 잠시였고 더 바빠졌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우리 가정에 내면적, 외부적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하가훈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하가훈에 참석하자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여곡절 끝에

하가훈 118기에 참석했다. 하가훈 1주차를 끝내고 내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내 약점은 주변 사람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가훈 2주차에 배운 가계도를 우리 가정에 적용해 봤다. 아버지의 심각한 경제 위주의 책임감과 형제들 사이의 소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그간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대했던 것 같다. 하가훈 3주차에서는 부부의 성을 배웠다. 이제까지 부부관계는 내가 원하면 아내가 마지못해서 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부부의 성 강의를 통해서 남녀의 다른 점과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부부 데이트 숙제를 하면서 반지를 만들었다. 내 반지는 아내가, 아내 반지는 내가 망치질했다. 이때 결혼 전 순전한 아내의 마음을 못된 말로 상처를 준 일들이 떠올랐다. 돌이킬 수 없지만 은근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둥근 솔로 계속해서 여러 번 광을 냈더니 점점 빛이 났다.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으면 점점 빛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가훈에 참석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선교학교를 시작하며



/ 김정섭 북한선교학교 총무(중종로공동체)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군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북한은 그냥 다른 나라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나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귀한 영혼들이 살고 있다. 다만 그들은 자유를 억압받으며 두려움 속에서 소리내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쌀, 의약품, 석유도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애통하고 애곡한 마음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흐르는 이 시대에는 북한을 분별하며 바라봐야 한다. 북한을 정치적 혹은 국제정세의 틀 안에서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다.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듯이 북한 땅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 5:1).

우리는 북한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둠의 영적 권세를 끊어야 한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서고, 주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느덧 북한선교학교가 15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북한선교학교에서는 6번의 강의를 진행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5월 26일에는 휴전선 아웃리치를 간다. 휴전선 아웃리치에는 자녀들과 동반이 가능하다. 통일총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임진각을 방문하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선교학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02-3215-3644

하우미션-총체적 선교스쿨 수료간증



/ 김혜영 집사(대전 온누리교회)

선교를 배우고 깨닫다

매주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면서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중요성을 느꼈다. 선교에 대한 기도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고 싶어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열리는 ‘하우미션-총체적 선교스쿨’을 기쁨과 설렘으로 신청했다. 5주 동안 배우고 깨달으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음이 생겼고, 아웃리치에 대한 특별한 소망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께 속해 있다”(신 10:14).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임을 옳고 고백했다. 우리가 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백성, 피조물들 간의 관계인 예배, 청지기, 소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과연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총체적인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

매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할지를 알아가는 경험도 했다. 안성농장에 방문해서 적정기술과 자연농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시 한 번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이다. 그곳에서 적정기술 로켓스토브를 만들고 나뭇가지에 불을 지피 라면을 끓이고 감자를 익혀 먹기도 했다.

안성농장은 장기 선교사님들이 파송 받기 전 훈련을 받는 곳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었다. 안성농장의 박 장로님과 정 권사님께서 땅을 일구는 법, 자연비료를 만드는 법, 감자 싹을 심는 법 등을 설명해주셨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우미션-총체적 선교스쿨에서 각자가 참여했던 아웃리치 경험을 나눴고, CHE 원리를 적용해서 새로운 아웃리치 계획도 세워보았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나뉘지고 효율적인 것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장로칼럼

하나님의 훈련소



박덕현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세가 특별한 것 없는 일과를 마치고 지평선 위로 넘어가는 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중의 경쟁 속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젊은 날의 추억이 그를 미소 짓게 했을까? 마음 속에 감추며 키워왔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사랑이 드러난 그날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두려움과 동족에 대한 배신감을 떠올리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양 떼만이 보이는 광야를 보는 모세를 생각하며 노년의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본다.

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상에서 우리가 아는 미래의 모세를 떠올려 본다. 또 모세가 이후에 전개될 40년을 상상이나 해보았을지도 함께 생각해본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돌아선 것이 하나님께는 필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40년의 단조로운 광야는 그를 꿈이 없는 모세로 변화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모세가 겪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는 삶의 굴곡에 의해 강요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

때로는 하나님께 외치고 울어도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고 버겁지만 무엇을 잘못 했는지 웃을 뒤편에 보듯 스스로를 뒤집어 보며 그분 앞에 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신 8:2).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실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럼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 아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보기 전에는 스스로를 잘 모른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쓴 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의 행적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훈련들을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신 8:5).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훈련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훈련에는 목표가 있고 일정이 있다. 어떤 이는 일찍 목표치를 달성해서 끝내는 이도 있고, 어떤 때는 훈련기간이 끝나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지인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그가 이렇게 물었다.

“연장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서로 웃으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견디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 믿는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저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둘러보면 어떤 이는 입소하고 다른 이는 퇴소한다. 찬양과 기도 기쁨과 슬픔이 있다. 예수공동체 안과 우리의 순모임에 말이다. 그러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이라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훈련소를 향해 발걸음을 땀다.

권사칼럼

청년들의 영적 부모



송기현 권사
(양천공동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청년들이 모이는 ‘영어그룹’을 소개받았다. 그 모임에 참석해보니 선교사님께서 멘토로 계신 크리스천 그룹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대학 캠퍼스에서 낙오자처럼 절망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세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면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내게는 부모님 같은 멘토가 가까이에 계셨다. 지금은 아흔을 훨씬 넘기셨지만 아직도 나의 든든한 멘토시다.

타 교회에서 청년부 교사로 오랜 기간 섬기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장기간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W공동체 멘토로 섬겨줄 것을 권유받았다. 오랜 기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왔던 일이었기에 주저 없이 승낙하였다. 그해 벌써 7년 전 일이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나이 예순이 넘는 나를 받아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청년들의 우렁찬 찬양소리가 큰 감격이었고,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을 잘 섬기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우리 부부는 청년들의 필요와 우리가 멘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을 개방해서 청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대일 제자양육

을 통해 청년들과 가깝게 되고, 그들의 영적 필요와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청년들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홀리스타’라 불리는 청년들의 새벽기도에도 매일 나가게 되었다.

홀리스타에서 만나는 청년들과 새벽기도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직장, 구직, 가족, 결혼 문제 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며 묵상한 말씀도 나눴다. 가끔은 같은 또래들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공통의 문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언제나 우리 집은 청년들을 위해 열려 있고, 청년들이 만남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만나고 있다.

하나님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회의 리더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잘 보듬고 섬기며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다. 특히 직장문제와 결혼 문제를 잘 감당하도록 권면해주고 힘이 되어 주고 싶다. 또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곁에서 밀어주고 응원할 것이다.

내가 청년일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늘 따뜻한 차와 손수 만드신 과자로 대접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어 주신 영적 멘토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을 보고 배우며 ‘나도 나중에 저런 멘토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꿔다. 청년들이 우리 부부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고백할 때마다 수십 년 전 꿈을 심어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미소를 짓는다.

언젠가 W공동체 청년들도 영적 멘토가 되어 청년들을 섬기고, 새로운 리더들을 키워가기를 바란다. 그 꿈이 모두를 춤추게 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마이크 리 목사
(안산M센터 필리핀예배)

내가 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오래 전부터 내가 선교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간절히 바래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온누리M미션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

안산M센터에서 사역하면서부터 더 이상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안산M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M센터에는 이주민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실시

는 몇 가지 주요 사역들이 있다.

첫째, 매년 추석이 되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비스트 추석 연합수련회’에 참석한다. 7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교제한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고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정말 시선을 땔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다. 하비스트 추석 연합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생각났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둘째, 작년 가을 안산M센터에서 국제요리를

이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축복하는 ‘올네이션스마켓(All Nations Market)’을 열었다. 다양한 나라 공동체에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고 2시간 만에 모든 음식이 판매됐다. 공동체가 같이 교제하며 각 나라의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지역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었다. 올해는 4월 15일에 지역주민을 위한 두 번째 올네이션스마켓을 준비했다. 지역 교회인 양문교회와 함께 동역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도 해소되었다.

셋째, 안산M센터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 및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를 원하는 이주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지과, 한방치료, 카이로프랙틱 등)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법률 상담, 이미용사역,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안산M센터를 방문해서 나라별 공동체를 소개받고 복음을 듣기도 한다.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안산M센터에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에 깜짝 놀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랑의 선물을 매일 받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안산M센터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안산M센터를 방문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안산M센터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 아멘!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탄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한 군사’라고 합니다. 악한 자의 집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집에 들어가 힘센 자를 결박해 놓고, 사로잡힌 이들을 구출하는 특공대입니다. 예수님은 특공대 사령관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더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훼방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해를 통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통해 배신하고, 악한 이들의 마음을 자극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의 마음속에는 사랑, 희생, 용납, 용서, 화목이 없기 때문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자신이 영원히 패배하는 십자가가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골 2:15).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무장 해제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함께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치면 어느 것이 먼저 느껴집니까? 번개가 먼저 보이고 소리는 나중에 들립니다. 동시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가 빛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의 소리를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워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30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죽은 동물의 사체에 까마귀들이 모여서 살점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 어

느 순간 까마귀 떼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먹을 게 없어 서웁니다. 살점은 다 먹고 뼈 밖에 없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은 사탄이 우리를 뜯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은 사체에 파리 떼가 몰려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떠납니다. 언제 그럴까요? 매장되면 떠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매장되면 우리에게 붙어 있던 모든 사탄의 파리 떼들이 떠납니다. 양을 뒤쫓던 늑대가 양이 목자 근처에 다가가면 단념하고 떠납니다. 어느 단기선교팀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온 몸에 거머리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거머리를 억지로 떼려니까 살점이 떨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향기로운 오일에 몸을 담그니까 거머리들이 다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목만 아픕니다. 우리의 힘과 권세, 죄악 가운데 있는 성품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향하여 명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을 문밖에 나가게 하겠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실 것이다.

“루터는 전에 여기 살았지만 이사해서 나갔다. 이제는 내가 산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보며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사탄처럼 거부한 이의 운명은 사탄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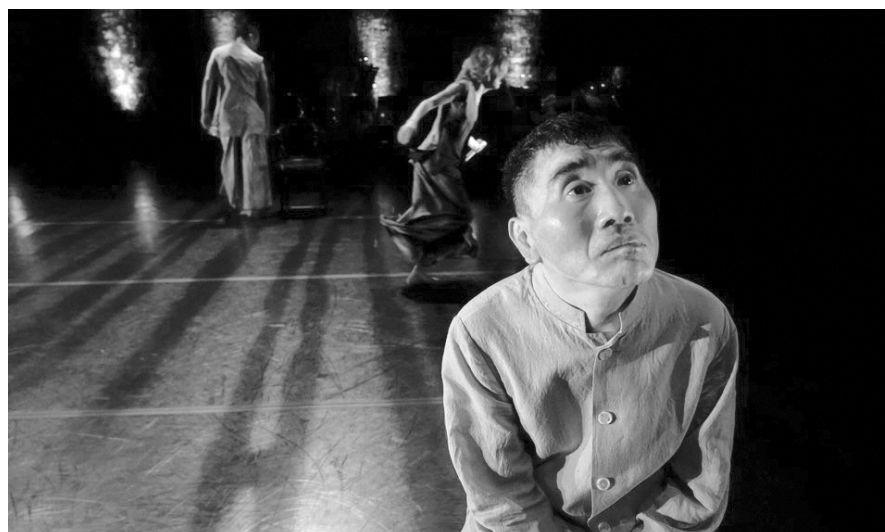


김성환 객원기자
(누리사랑부)

뇌성마비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장애가 있으면서도 건강한 다른 배우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무대를 누비는 진정한 춤꾼이 있다. 그의 이름은 최종천이다. 최종천 형제가 얼마 전 강

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센터에서 트러스트 무용단이 공연한 ‘두리 새로 서로 하나’에 출연해 춤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공연을 지켜본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두리 새로 서로 하나’는 2018년 평창 장애인올림픽 개회를 기념해서 열린 공연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위와 아래에 관한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 이 공연은 장애



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세상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담은 수작(秀作)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이기도 한 트러스트 무용단 김형희 단장은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읽는 능력과 공간적·시간적 감각이

매우 탁월하다”며 배우로서 최종천 형제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최종천 형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늘 강대상 바로 밑, 성도들이 앉는 좌석 맨 앞줄에 앉아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누리사랑부 예배에서도 최종천 형제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리사랑부 성도들의 식사가 끝난 후 잔반처리와 엘리베이터 안내도 벌써 여러 해째 섬기고 있다.

그를 보고 있을라치면 타고난 장애를 무릅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그는 장로님이신 82세 된 부친과 권사님이신 81세 모친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장애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 성심으로 모시는 효자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창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	---	---

당신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

세네갈 본나바
모리타니 엘부라트
기니비사우 블룸
부르키나파소 사노고
르완다 응호망과
르완다 가훈도
탄자니아 나와게
네팔 고레다라
파키스탄 후쉬푸르
스리랑카 아길
필리핀 아팜타바
필리핀 비농안안
몽골 브리야트족
인도네시아 람퐁족
미얀마 그두족
스리랑카 베다족
멕시코 푸엔테스

/ 긴급구호 /

일본 쓰나미, 지진
태국 홍수
터키 지진
아이티 태풍
필리핀 태풍, 지진
아프가니스탄 산사태
스리랑카 홍수

/ 난민지원 /

우간다 남수단 난민
레바논 시리아 난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난민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놓쳐버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멋진세상과 함께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ONNURI NGO

더멋진 세상
better world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입니다. 가난과 질병, 자연 재해, 전쟁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망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NGO입니다.

www.abetterworld.or.kr